

## 하얀 구름이 되어

김수자(대구 가톨릭병원 자원봉사자)

어느날 꿈에 환자 분이 빛을 발하는 하얀 구름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 가면서 떠나게 되었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방에 있는 우리들은 잘 가시라고 말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도 이상한 꿈이기에 아침기도 중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선종을 빌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복수도 차지 않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일찍 친구집을 방문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것 같아 1주일에 5일은 방문했습니다.

성가가 흘러 나오며 환자는 앉아서 죽과 과일을 드셨고 검었던 얼굴도 본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기적이라 했지만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유학 중인 아들 딸에게 연락을 하여 오게 하고 열이 계속 있었으므로 임종기도를 청했습니다.

환자가 성가를 무척 좋아해서 봉사자들과 함께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는 봉헌성가를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 하였고 친구는 남편 곁에서 계속 성가를 부르고 테이프도 들려 드리고 밤에는 묵주기도를 함께 바쳤습니다.

혈압을 계속 관찰하면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가족에게 알리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10년의 병고는 보속이었으며, 하늘 나라에 가실 것이라고 말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장지와 장례절차도 본인이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꿈을 꾸지 1주일 뒤 친구 딸의 전화를 받고 택시로 급히 갔습니다. 큰 눈을 한 번 뜨시고 저를 쳐다 본 후 가족들 앞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분당 레지오 단원들과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모든 일을 주선해 주었고 장지까지 동행했습니다. 낮 12시가 조금 지나 하관예절을 올리려는데 누군가가 하늘을 보라고 해서 쳐다보니 햇빛이 내리쬐는 초여름 맑은 날씨에 해 주위에 동그랗게 해무리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보며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구름을 보라고 말하고 하늘을 향해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잊고 안녕히! 안녕히!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족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지요. 지금도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말씀 중에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며 먼 훗날 다시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죽음이 주는 평화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면서 임종에 임하는 한분 한분 뵈오며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도 가꾸어 가는데 많은 수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